

ICDC Weekly

인천광역시 감염병 주간소식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발행일 2025. 7. 3.(목) 통권 제29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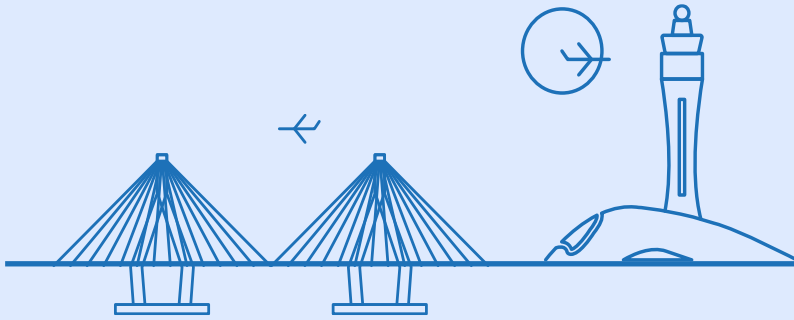
발행처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2층

연락처 032-440-8031

- 01 주간 감염병 소식
- 02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현황
- 03 감염병 표본감시 신고 현황
- 04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 05 홍보자료

[부록] 2025년 백일해 발생 현황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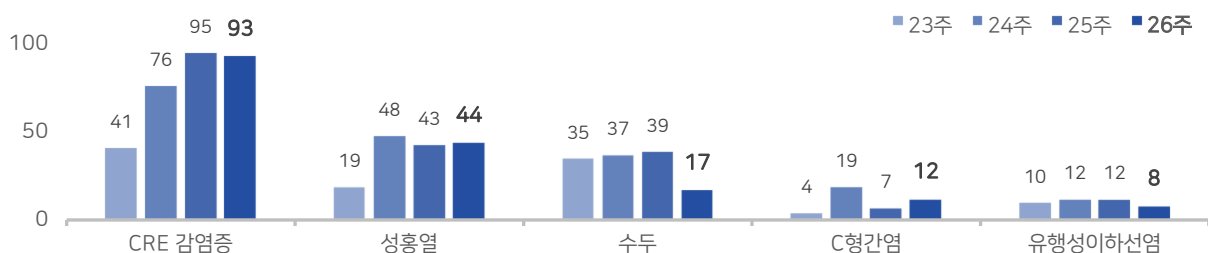
주간 감염병 소식

전국 및 인천광역시 감염병 누적 신고 현황



- (전국) 전국 감염병은 CRE 감염증 23,067건, 수두 16,573건, 성홍열 6,201건, 백일해 4,963건, 유행성이하선염 3,661건 순으로 신고됨
- (인천) 인천광역시 감염병은 CRE 감염증 1,840건, 성홍열 689건, 수두 689건, 백일해 247건, C형간염 244건 순으로 신고됨
- 신고현황은 '25. 7. 3.(목)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감염병통계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25년 누적기간(1주차~26주차)에 신고된 다빈도 5개 감염병에 대한 누적신고 건수임

인천광역시 다빈도 감염병 주요 신고 현황



- 26주차 인천광역시 감염병은 총 192건 신고되었으며, 최근 3주(2025년 23주~2025년 25주) 평균(181건) 대비 11건 증가함
- 신고수 상위 5개 감염병은 CRE 감염증 93건, 성홍열 44건, 수두 17건, C형간염 12건, 유행성이하선염 8건 순서임
- 소식지 내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현황(2페이지)을 참조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현황

구 분		인천								전국			
		2025				동기간대비 (1-26주)				동기간대비 (1-26주)			
		26주	25주	24주	23주	2025	2024	증감	5년 평균	2025	2024	증감	5년 평균
1급	보툴리눔독소증												0
2급	수두	17	39	37	35	689	626	▲ 63	591	16,573	16,523	▲ 50	13,055
	홍역					2	2	- 0	1	64	47	▲ 17	23
	장티푸스						1	▼ 1	1	16	20	▼ 4	20
	파라티푸스						1	▼ 1	1	5	7	▼ 2	8
	세균성이질			1		1	2	▼ 1	1	30	20	▲ 10	19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			10	4	▲ 6	3	133	101	▲ 32	90
	A형간염	3			2	38	40	▼ 2	95	591	678	▼ 87	1,303
	백일해	3	3	2	1	247	705	▼ 458	190	4,963	5,402	▼ 439	2,081
	유행성이하선염	8	12	12	10	204	184	▲ 20	202	3,661	3,624	▲ 37	3,834
	수막구균 감염증									7	12	▼ 5	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	1	- 0	1
	폐렴구균 감염증		2			17	20	▼ 3	18	274	266	▲ 8	218
	한센병									1	2	▼ 1	1
	성홍열	44	43	48	19	689	223	▲ 466	191	6,201	2,649	▲ 3,552	1,941
	VRSA 감염증									1	1	- 0	1
	CRE 감염증	93	95	76	41	1,840	1,742	▲ 98	1,397	23,067	20,875	▲ 2,192	16,898
	E형간염	1		3	1	14	18	▼ 4	10	404	319	▲ 85	284
3급	파상풍	1				2	1	▲ 1	1	9	11	▼ 2	10
	B형간염		1	1		10	11	▼ 1	10	116	124	▼ 8	159
	일본뇌염										1	▼ 1	0
	C형간염	12	7	19	4	244	275	▼ 31	313	2,907	3,390	▼ 483	4,006
	말라리아	5	3	7	4	33	41	▼ 8	30	189	227	▼ 38	190
	레지오넬라증					7	13	▼ 6	11	239	167	▲ 72	181
	비브리오패혈증								0	3	6	▼ 3	3
	발진열					1	5	▼ 4	1	7	12	▼ 5	5
	쯔쯔가무시증					1	2	▼ 1	4	152	671	▼ 519	465
	렙토스피라증								0	16	14	▲ 2	23
	브루셀라증									4	2	▲ 2	2
	신증후군출혈열			2		3	2	▲ 1	2	88	121	▼ 33	103
	CJD/vCJD					1	4	▼ 3	2	24	27	▼ 3	32
	뎅기열			1		4	5	▼ 1	3	42	86	▼ 44	40
	큐열	1				1	1	- 0	1	27	29	▼ 2	23
	라임병								0	8	15	▼ 7	9
	유비저									2	1	▲ 1	1
	치쿤구니야열									1	1	- 0	2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75	47	▲ 28	49
	지카바이러스감염증									2		▲ 2	1
	엡폭스									3	4	▼ 1	4
	매독	4	3	5	4	81	78	▲ 3	80	1,112	1,378	▼ 266	1,245
	매독(선천성)					1		▲ 1	1	9	5	▲ 4	7

- 26주차(2025. 6. 22. ~ 2025. 6. 28.) 전수감시 신고 현황은 2025. 7. 3(목)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감염병통계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2024~2025 통계 자료는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5년 평균은 최근 5년(2021~2025)의 1주부터 해당 주까지 누적 신고수의 평균이며 엡폭스, 매독, 매독(선천성)은 최근 2년(2024~2025)의 1주부터 해당 주까지 누적 신고수의 평균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된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기초로 집계되며, 감염병별 신고범위에 따라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가 포함될 수 있음

- 지역별 통계는 환자 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함 (단, VRSA 감염증과 CRE 감염증은 신고한 의료기관 주소지 기준임)

- 최근 5년(2021~2025) 동안 발생이 없었던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아토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콜레라, 풍진, 폴리오, 발진티푸스, 공수병, 황열, 웨스트나일열, 진드기매개뇌염은 제외함

수족구병 표본감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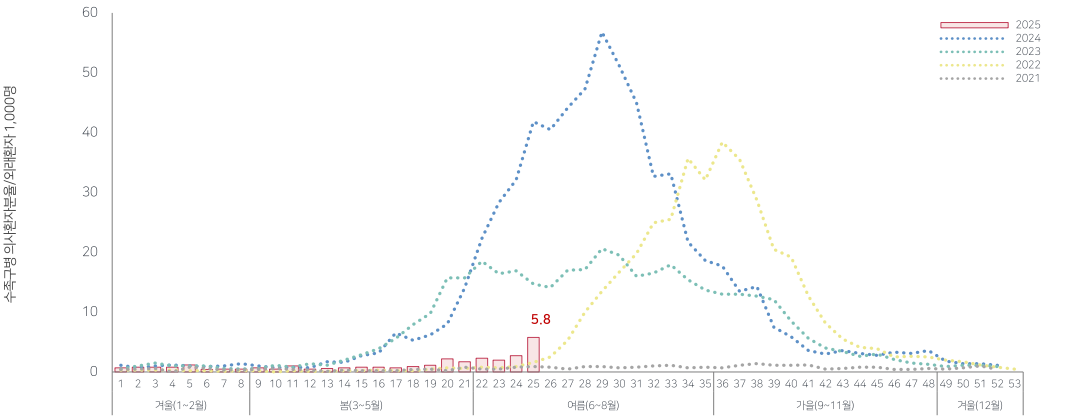
주별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임상감시 현황

- (전국) 25주차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5.8명으로 전주(2.7명) 대비 증가

단위: 수족구병 의사환자 수/진료환자 1,000명

구분	2025년							
	18주	19주	20주	21주	22주	23주	24주	25주
전체	0.9	1.1	2.2	1.7	2.3	2.0	2.7	5.8
전국 0-6세	1.0	1.4	2.6	2.2	3.1	2.7	3.9	8.3
7-18세	0.6	0.6	1.5	0.8	1.0	0.7	0.8	1.9

2021-2025년 주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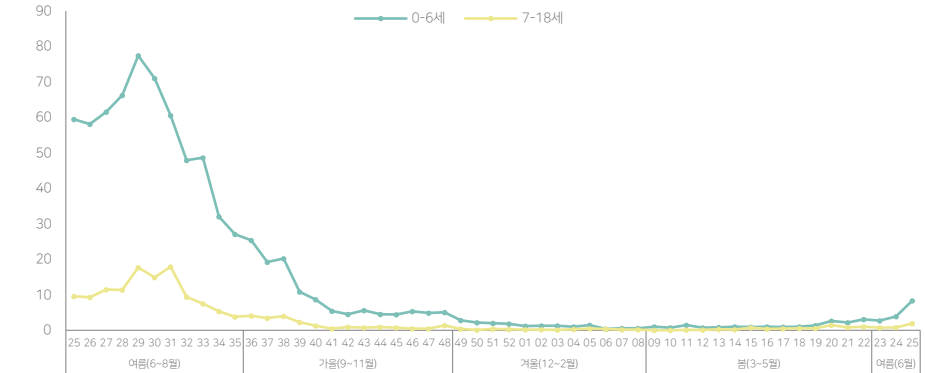


1)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전분율) =
(수족구병 의사환자 수/총 진료환자 수) x 1,000

2025년 25주차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전국)



최근 1년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전국)



- 25주차(2025.6.15~2025.6.21.) 표본감시 현황은 2025.6.30.(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감염병통계 및 2025년도 25주차 표본감시 주간소식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수족구병 표본감시 현황은 표본감시 참여기관의 수족구병 의사환자* 감시 자료를 보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

* 의사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수행기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 전국 110개 수족구병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의원)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국내 영유아 수족구병 증가! 예방수칙 준수 및 위생관리로 건강하게 보내기

- 최근 영유아에서 수족구병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당분간 발생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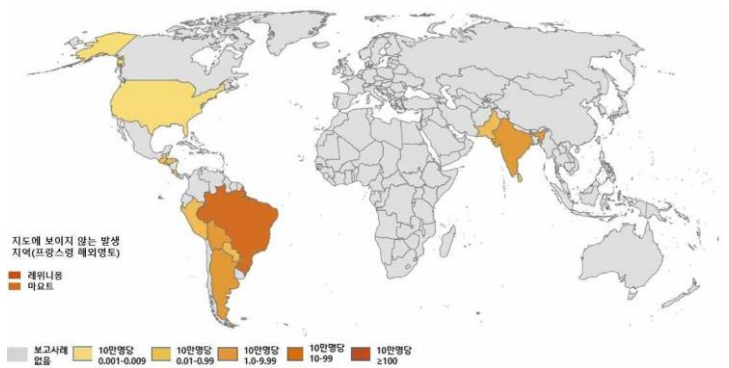
- 질병관리청은 최근 수족구병 환자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영유아가 있는 가정 및 관련 시설에서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함
 - 금주 수족구병 발생상황(의사환자분율*)은 5.8명/1000명(6.15.~6.21.기준)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0-6세는 8.3명/1000명으로 7-18세(1.9명)보다 더 높은 발생을 보임
 - 매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여 6월~9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환자발생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 의사환자분율(%) : 수족구병의사환수/전체 외래환자수 × 1000
-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엔테로바이러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환자의 대변 또는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이러한 것에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전파됨
 - 주요 증상으로 손, 발, 입안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며, 발열, 무력감, 식욕 감소, 위장관증상(설사, 구토)이 나타날 수 있음
- 수족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후, 식사 전·후, 기저귀 뒤퍼 후, 환자를 돌본 후 반드시 손씻기,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깨끗하게 세탁하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함
- 환자 발생 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 (가정) 3~4일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고 대부분 7~10일 이후 치유되지만, 드물게 뇌막염, 뇌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족구병 의심 증상을 보이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함
 - 또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환자와 관련된 물품은 세탁 및 소독관리 해야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난감, 놀이기구, 문 손잡이 등 손이 닿는 집기의 소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영유아가 식사 전·후, 화장실 사용 후 손씻기 등 개인 예방 수칙을 잘 지키도록 안내 해야함
 - 수족구에 걸린 영유아는 증상 발생 동안은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회복될 때까지 어린이집 등의 등원을 자제하도록 함

국외 치쿤구니아열

-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유행 및 지역 확산세, 치쿤구니아열 주의

- '25년 6월 초까지 전 세계 14개 국가에서 치쿤구니아열 누적 22만 명 이상 발생(사망 80명) 보고됨
 - (미주) 치쿤구니아열 주 발생지역으로 브라질(약 14만 명),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 순으로 보고
 - (아시아)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에서 약 3만 3천 명 발생 보고
 - (유럽) '25년 6월 프랑스에서 치쿤구니아열 '25년 첫 자국 내 감염 사례 보고 후 1명 추가 보고, 치쿤구니아열 유행이 지속 중인 프랑스령 레위니옹은 '25년 17주차 이후, 마요트는 '25년 22주차 이후 확진자 수 감소세임

- WHO는 치쿤구니아열 유행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되는 관절염, 관절통 등의 증상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부담이라고 언급함
 - 중증으로 진행할 확률은 0.1% 미만이지만 유행 규모 및 감염된 신생아의 장기 기능 장애 등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 발생이 의료서비스 부담을 줄 수 있음다고함



'25년 3~5월 전 세계 치쿤구니아열 발생 사례 분포(ECDC)

- WHO는 치쿤구니아열 발생 증가 요인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매개체 분포 확대, 계획되지 않은 도시화 및 열악한 물 관리로 인한 매개체 번식 증가, 정치적 분쟁 심화로 감시 및 대응 미흡 등을 언급함
 - ECDC는 치쿤구니아열이 유럽에서 풍토병은 아니지만 매개 모기 서식 환경조건이 모기 활동에 적합하며, 예년(7~8월)보다 이른 '25년 첫 사례 발생은 해외 유입 사례 급증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함
- 치쿤구니아열 국내발생 보고는 아직 없고 해외유입 사례만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20~'24년) 동남아시아 방문 후 감염된 사례가 가장 많았음
 - 치쿤구니아열 발생 국가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며, 모기예방 물품 준비, 모기기피제 사용 등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필요함

국외 콜레라

- (전 세계) '25년 5월 전 세계 콜레라 발생 상황은 전월 대비 35% 증가하여 우려스러운 상황 지속

- '25년 5월 전 세계 콜레라/AWD(Acute Watery Diarrhea, 급성수양성설사) 발생 상황은(환자 52,589명, 사망 552명) 전월 대비 환자는 35% 증가 및 사망자는 4% 감소했고, 전년 동기간 대비 환자 24% 감소 및 사망자 122% 증가함
- '25년 발생 현황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고(16개국에서 117,346명 발생, 2,447명 사망), 그 다음으로 동지중해 지역(5개국에서 92,194명 발생, 307명 사망), 동남아시아 지역(5개국에서 2,138명 발생, 사망 없음) 순임



- WHO는 현재 심각한 기후변화와 현지 분쟁 상황에 따른 콜레라 감시 활동 중단 및 보고 지연으로 콜레라 발생 정보가 불완전한 점을 감안하여 데이터 해석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콜레라 유행에 대해 WHO는 가장 높은 위기등급*인 3단계(G3)를 부여하여 위기관리 중이며, 지난 3월 18일 제7차 신속위험평가(Rapid risk assessment)를 통해 종합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유지하기로 함

* WHO가 위기관리 개입이 필요한 위기상황을 3가지 단계로(Grade 1~3) 구분하여 관리하며, 3개월 간격으로 위기수준 재평가

- 우리나라가 속한 WHO 서태평양 지역에는 현재 콜레라 발생 보고가 없고, 국내에서도 2019년 (해외유입 1명) 이후 더 이상 보고되지 않고 있음
- 국외 콜레라 유행 및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외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 중이며, 해외 여행자의 경우 여행 전 콜라라 유행 또는 발생지역을 확인하여 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도록 권고함

※ 출처: 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제24호(2025. 6. 27.)

수족구병

개요

- ▶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열 및 입안 물집과 궤양, 손발의 수포성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



감염경로

- ▶ 직접접촉이나 비말을 통해 사람 간 전파
- ▶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수영장에서도 전파 가능



증상

- ▶ 10세 미만, 특히 5세 이하 영유아에서 자주 나타남
- ▶ 발열, 식욕부진, 인후통, 무력감
- ▶ 혀, 잇몸, 뺨의 안쪽, 입천장 등에 통증성 피부병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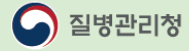
예방법

- ▶ 올바른 손씻기
- ▶ 기침 예절 지키기
- ▶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 청결유지
- ▶ 수족구병 환자와 접촉 피하기



치쿤구니아열 예방,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Protect yourself from Chikungunya Fever,
and make sure to follow these essential steps!



치쿤구니아열 유행지역을 여행 중이신가요?

Traveling to a chikungunya-affected area?

- ✓ **치쿤구니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에 물려 감염**
Chikungunya is transmitted through the bite of an infected mosquito.
- ✓ **급성 발열, 관절통, 발진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심각한 경우 심근염, 뇌수막염, 눈질환(포도막염) 등 중증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음**
Common symptoms include sudden fever, joint pain, and rash
severe cases can lead to complications such as myocarditis, meningitis, and eye diseases like uveitis.
- ✓ **국내 상용화된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
There is no available vaccine or treatment in the country, so avoiding mosquito bites is crucial!

치쿤구니아열, 이렇게 예방하세요! ✓

How to protect yourself from chikungunya



모기 물림 주의

Avoid mosquito bites.



외출시 긴팔·긴바지로 노출 최소화

Wear long sleeves and pants to minimize
skin exposure when outdoors.



방충망, 모기장, 기피제 사용

Use window screens, mosquito nets,
and insect repell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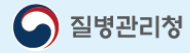
치료종료 후 6개월 간 헌혈 금지

No blood donation for 6 months
after recovery.

※ 여행 후 자신의 건강상태 2주 동안 관찰, 감염병 의심증상 있을 경우 1339 콜센터로 전화하여 상담

※ Monitor your health for 2 weeks after travel. If you show any symptoms, call 1339 for advice.

콜레라 예방,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Protect yourself from Cholera, and make sure to follow these essential steps!



콜레라 유행지역을 여행 중이신가요?

Traveling to a cholera-affected area?

- ✓ 오염된 물과 음식을 통해 감염되며, 익히지 않은 어패류 등의 **해산물, 오염된 지하수 및 음용수가 원인**이 됨
Cholera spreads through contaminated water and food, especially raw seafood, and unclear water sources.
- ✓ 처음에는 물과 같은 설사, 구토를 동반하며, 탈수가 진행될 경우 급성 신부전 및 쇼크로 진행할 수 있어 **의료기관 방문 필수!**
Early symptoms include watery diarrhea and vomiting, which can quickly lead to dehydration, kidney failure, and shock. Immediate medical attention is crucial!
- ✓ 콜레라 유행지역에 장기간 거주 예정인 경우 예방 접종 권장
If you plan to stay in a cholera-prone area for an extended period, vaccination is recommended.

콜레라, 이렇게 예방하세요! ✓

How to protect yourself from cholera



물은 끓여 마시기
Drink only boiled water.



지하수도 주의
Be cautious of well water.



**음식(어패류, 생선류 등)은
충분히 조리하여 익혀 먹기**
Ensure all food, especially seafood
is cooked thoroughly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Wash your hands with soap
for at least 30 seconds.

※ 여행 후 자신의 건강상태 2주 동안 관찰, 감염병 의심증상 있을 경우 **1339 콜센터**로 전화하여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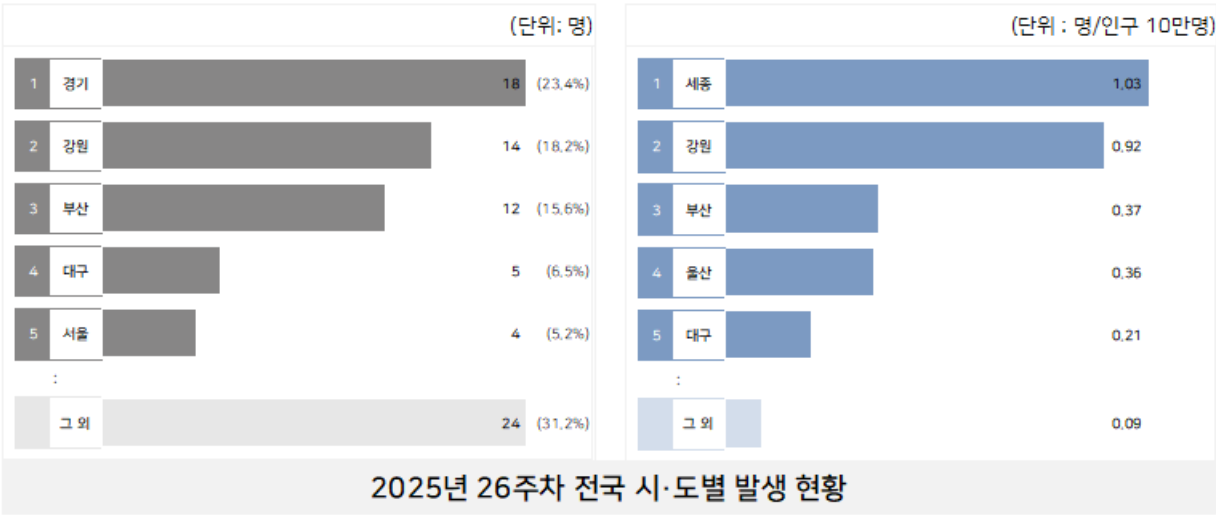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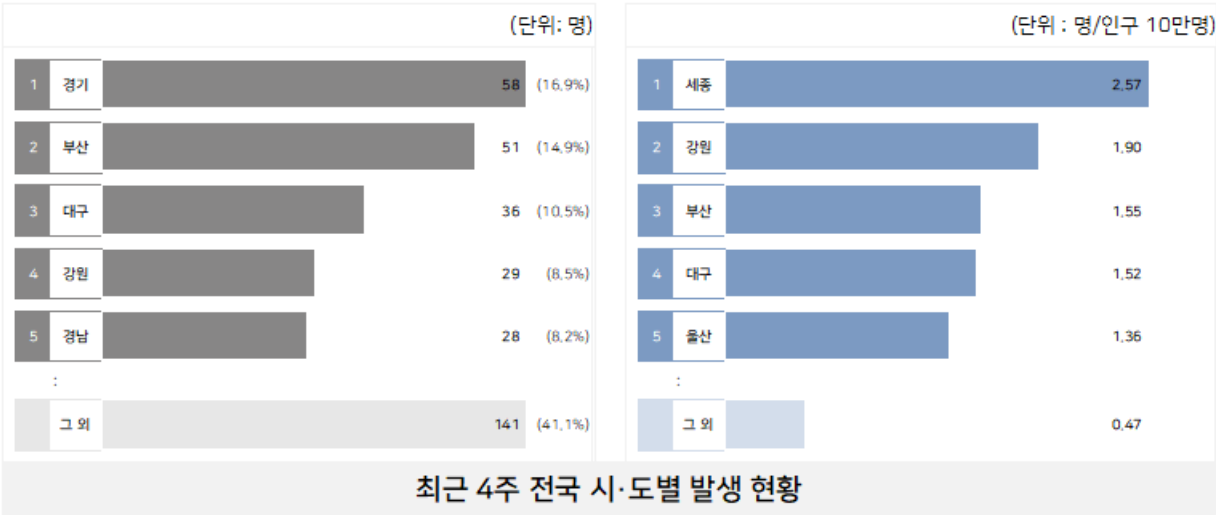
※ Monitor your health for 2 weeks after travel. If you show any symptoms, call **1339** for advice.

2025년 백일해 발생 현황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보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1. 전국 시·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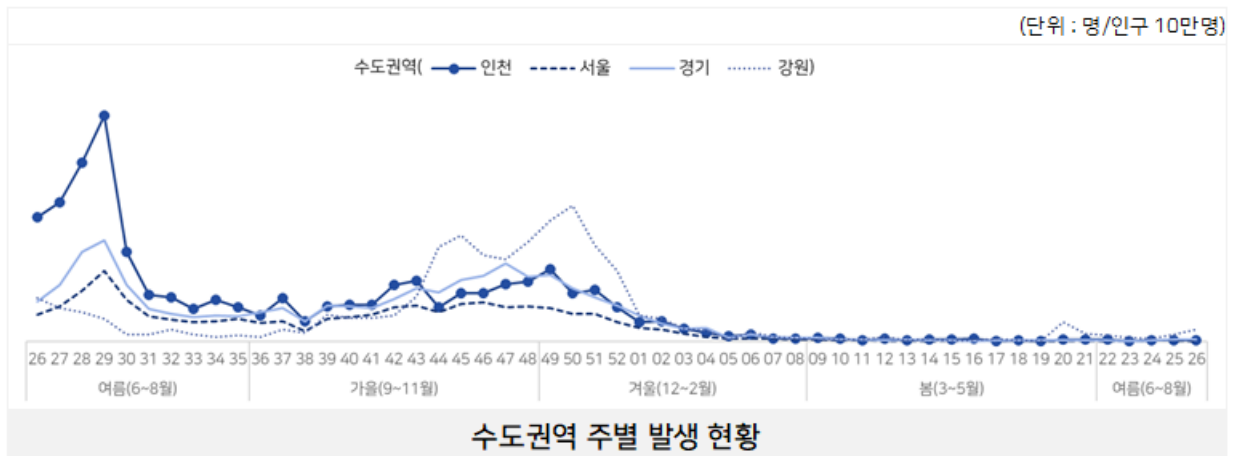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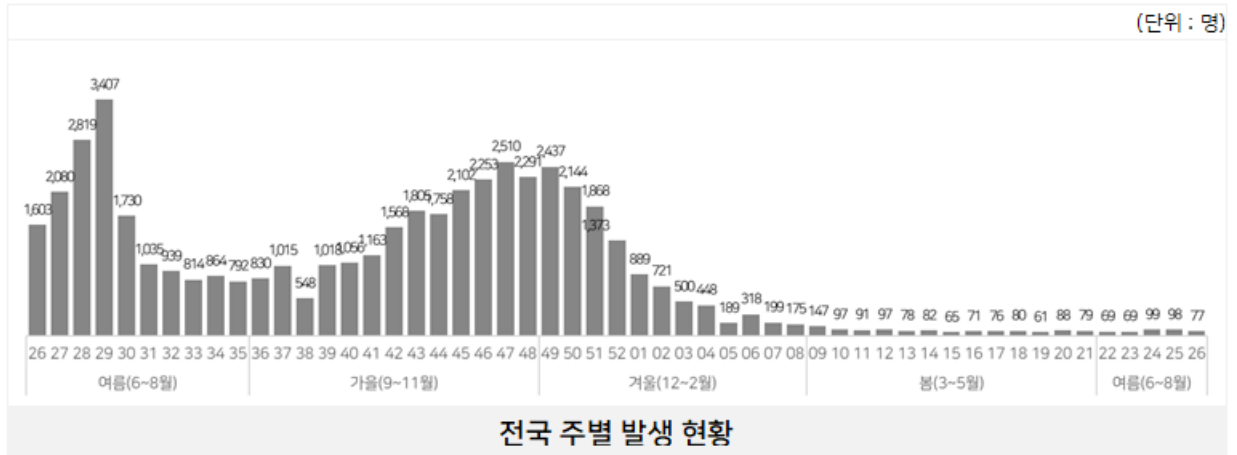
- **누적** 최근 4주(6.1~6.28) 백일해 환자 343명 발생
 - (신고수) 경기(58명, 16.9%), 부산(51명, 14.9%), 대구(36명, 10.5%), 강원(29명, 8.5%), 경남(28명, 8.2%) 등의 순
 - (발생률) 세종(2.57명), 강원(1.90명), 부산(1.55명), 대구(1.52명), 울산(1.36명) 등의 순
- **주간** 2025년 26주차(6.22~6.28) 백일해 환자 77명 발생
 - (신고수) 경기(18명, 23.4%), 강원(14명, 18.2%), 부산(12명, 15.6%), 대구(5명, 6.5%), 서울·울산·세종(각각 4명, 5.2%) 등의 순
 - (발생률) 세종(1.03명), 강원(0.92명), 부산(0.37명), 울산(0.36명), 대구(0.21명) 등의 순



2. 주별 현황

○ 전국적으로 12월부터 감소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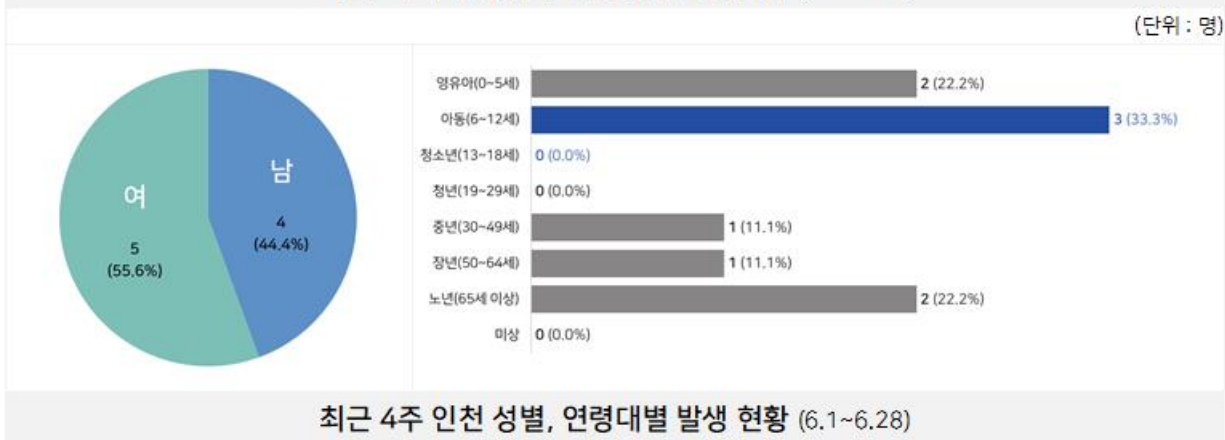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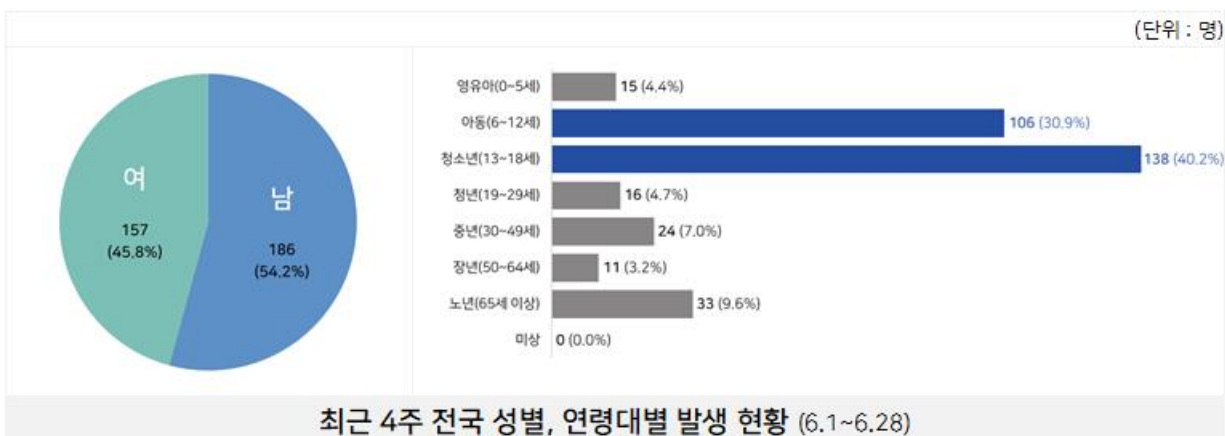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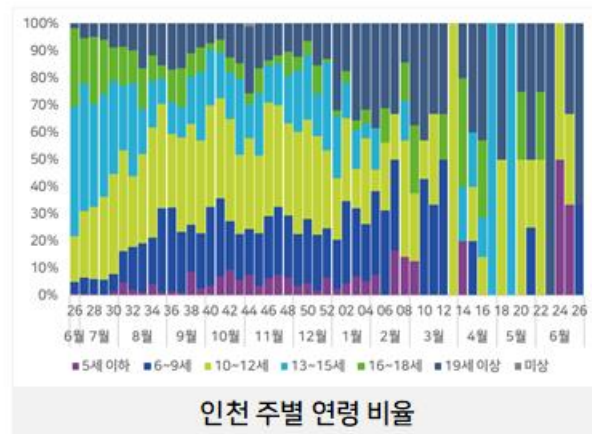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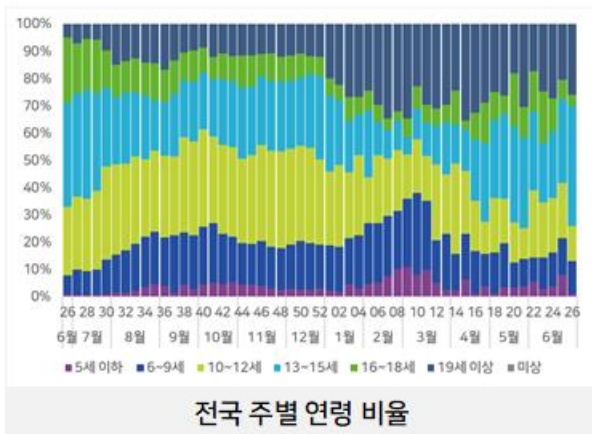
- **전국** 26주차(6.22~6.28) 77명으로 전주(98명) 대비 감소(▼21.4%)
- **인천** 26주차(6.22~6.28) 3명으로 전주(3명) 대비 동일(0.0%)



3. 성별, 연령별 현황

○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하며 아동 및 청소년(6~18세)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함. 2024년 7월 유행까지는 중학생 연령대(13~15세), 2025년 1월 유행까지는 초등학생 고학년 연령대(10~12세) 중심으로 발생하였고 2~3월에는 초등학생 저학년 연령대(6~9세)의 비율이 높았음. 최근 전국은 다시 중학생 연령대(13~15세)의 발생 비율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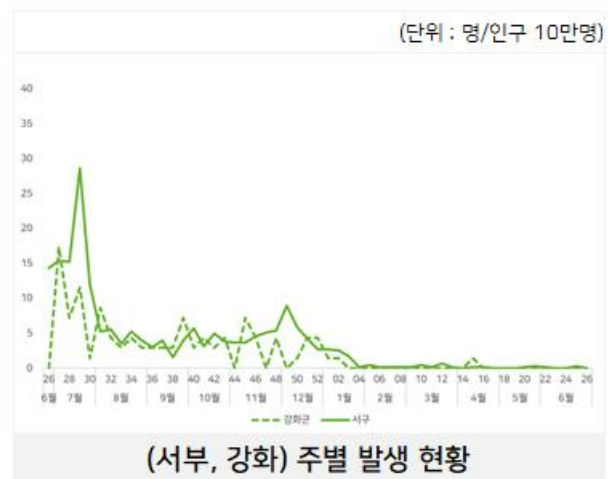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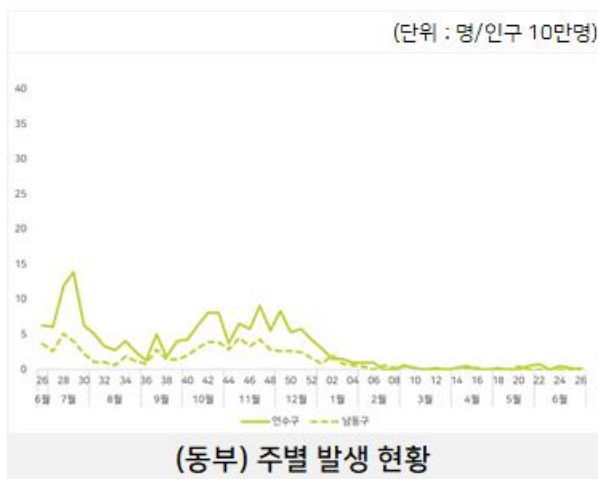
- **전국** 13~15세 비율: 23주 21.7% → 24주 24.2% → 25주 30.6% → 26주 44.2%
- **인천** 13~15세 비율: 23주 0.0% → 24주 0.0% → 25주 0.0% → 26주 0.0%



4. 지역별 현황

○ 최근 4주(6.1~6.28) 백일해 환자 9명 발생

- **신고수** 연수구(3명, 33.3%), 부평구(2명, 22.2%), 서구(2명, 22.2%), 남동구(1명, 11.1%), 계양구(1명, 11.1%) 순
- **발생률** 연수구(0.76명), 부평구(0.41명), 계양구(0.36명), 서구(0.32명), 남동구(0.20명) 순



ICDC Weekly

인천광역시 감염병 주간소식지

